

크기가 아닌 시대에 맞는 역할 다해야 '큰 사찰'

근대 역경의 산실 대각사(大覺寺)

30년 넘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 "읽을 만한 불교서적을 추천해달라"는 말이었다. 어느 정도 불교지식만 있으면 소개되는 책이 많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더 자신에 맞는 책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으로 알고 질문한 사람의 수준에 맞게 추천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당황스런 것은 불교서적은 읽을 만한 것이 없어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다. 실제 30여 년 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교계에 좋은 책이 드문 것은 독자층이 넓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읽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온다.

조사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 신자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조선조를 지나오면서 불교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신행이 주류를 이루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불교 신자들의 신행을 보면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대부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비는 기복신행이다. 이런 신행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쯤에서 슬며시 궁금증이 생긴다. 지금 불자들이 읽을 책이 드물다면 예전 불교신자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당시 불교신자도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했을까? 공교롭게도 100여 년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3가 쪽으로 조금 걸다보면 왼쪽 상가건물 뒤로 기와지붕의 처마가 살포시 드러난다. 이곳이 종로 북악동으로 용성 선사(1864~1927)가 세운 대각사가 있는 곳이다. 1864년 5월 8일 전라도 남원에서 출생한 선사는 14세 때 꿈에 부처님을 뵈는 것이 인연이 되어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용성 선사 진영

전국을 다니면서 안거와 운수생활을 통해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선풍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구했다. 한때 중국에 건너가 선지식을 견진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귀국하면서 대중을 위한 불교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 서울에 상경한 1911년 신도 집에서 법회를 하다가 53세인 1916년, 이곳의 민가를 구입해 대각사를 창건하고 불교 개혁을 통해 민족중흥을 발원했다.

대각사는 어느 도량처럼 넓은 마당과 고풍스런 당우는 없다. 주변 지역 역시 상가와 민가가 밀집한 탓으로 숲과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냥 도심 한복판에 사찰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어색함마저 있지만 대각사는 근대 역경의 발원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금은 많은 어려움 끝에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이 완결됐지만 그 연원을 보면 이곳에서 시작한 삼장역회가 그 효시가 될 수 있다. 그 후 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한글대장경 번역 사업이 발원되고 마침내 대장경의 완역을 이루었으니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용성이 경전번역의 서원을 세운 것은 불교계 대표로 3·1운동에 참여 후 옥중 생활에서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없다는 사실과, 타종교의 한글번역이 상당히 앞서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이다. 그가 수감된 서대문 감옥에는 당시 참여한 여러 종교의 대표와 신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해 공부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책 모두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었다. 그것을 본 용성은 경전번역이라는 큰 원력을 세웠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과 논의하였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해서 각 사찰에 공문을 보냈으나 협조하는 사람은 없고 비방하는 사람만 많았다. 주변의 협조가 없자 혼자라도 실행할 것을 결심한 용성은 1921년 출옥하자 대각사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결성하고 번역을 시작했다.

실제 용성은 예전부터 한문경전으로 포교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우선 한문 공부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인류가 생존경쟁의 현실에 직면해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한문 공부에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는지는 아니다. 또한 미래는 불교학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인류가 처한 현실은 철학 과학 천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 배울 것이 많은 시대인 탓에 한문만을 공부하는 것은 문명 발달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신도들이 보는데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누가 보더라도 즉시 알 수 있도록 번역되면 보급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다.

불교대중화와 연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용성은 이곳에서 <금강경> 번역을 시작으로 1927년 11월 <화엄경> 번역을 마칠 때까지 매진했



용성 선사 53세인 1916년 민가를 구입해 대각사를 창건하고 불교개혁을 통해 민족중흥을 발원했다.

종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각사는 용성 선사에 의한 근대 역경의 발원지 <금강경> 비롯해 <화엄경>까지 번역돼 규모 작아도 큰 의미 지닌 큰사찰 대각사

다. 척박한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평생을 거쳐 경전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경전의 한글화와 전산화 작업이 진행됨을 볼 때 그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용성은 그런 자신의 작업이 당대에 끝날 것을 염려해 유훈으로 10사목(事目) 가운데 일곱 번째 불경과 아록을 100만 권이 넘도록 유포시킬 것을 당부했다. 실로 예정을 갖고 실행한 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성의 번역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첫째, 그의 경전번역은 항일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성은 3·1운동에 불교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민족정신을 강조한 수행자로 민족의 글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대각사는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한용운 등 많은 독

립 운동가들이 모여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했으며,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광복 후 그 고마움에 김구 선생이 이곳을 방문해 선사의 뜻을 높이 기린 것을 보면 작지만 큰 역할을 한 곳이다.

두 번째는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한 것이다. 용성의 경전번역은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불교의 용어를 신선한 이미지로 재편하는 작업이었다. 경전상의 계승을 우리말로 살필바듯이 바꾸고, 문어체의 딱딱한 표현을 구어체로 바꾸면서 언어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야 하였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교학의 발전이다. 경전이 읽기 쉽게 번역된다면 대중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이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중국불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춘 수행자들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보면 용성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삼장역회를 통해 전문적인 번역을 주도한 용성의 활동은 그전부터 자신이 전개한 대각교 운동의 일환이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삼계의 대몽(大夢)을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는 일이다. 그런데 출가하는 날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런 병폐를 없애고 새 시대의 종교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한 것이 대각교 운동이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장 심혈

을 기울인 것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다.

佛(불)을 번역하면 대각(大覺)이기 때문에 대각교를 창립해 우리나라 불교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세계와 중생이 모두 밝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번뇌가 일어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지와 내가 하나이며, 지각(知覺)의 성품이 잠복돼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중생의 본심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회가 상설화되는 것이 최선이다. 법회를 통한 불교교육과 신앙심 고취만이 신도들의 신앙적 자세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방안이 불교가 급변하는 사회에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으며, 타종교와의 경쟁에서 불교가 앞설 수 있다고 용성은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면적이 넓고 당구가 많은 곳을 큰 사찰이라 한다. 그러나 용성이 보여 준 활동으로 볼 때 큰 사찰은 크기가 아니고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할 때 큰 사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각사는 규모는 작지만 사찰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큰 사찰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 industour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서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롭고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도 불교성지+나란다 8일
- 인도 불교성지순례 핵심일주 9,10일
-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전일주 11,12일
- 인도 불교성지순례전일주+오랑가바드석굴 14,15일
- 인도 불교성지 대열반열차 11일



- ◆ 이 밖에 스리랑카, 라오스/미얀마, 중국 성지순례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 불교성지순례 상품은 www.industour.com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각 사찰의 상황에 맞게 최상의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인더스투어 불교성지순례팀 직통 : 02)2252-822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일찍이신 과동감사동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